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형 대표

작품이 훌륭하다면 작가가 누구인들 무슨 상관이 있는가? 로맹 가리 혹은, 에밀 아자르가 한 말이다. 어떤 것이 훌륭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 이상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다. 작품의 수준과 완성도보다 작가의 유명세에 따라서 다르게 보거나 값을 정하려는 속물적인 시선에 대한 비판이고 질타다.

로맹 가리는 '하늘의 뿌리' (1956)를 써서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 상을 받은 작가이고, 에밀 아자르는 '자기 앞의 생'이라는 소설로 1975년에 같은 콩쿠르 상을 받은 작가다.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믿기 어려운 사실은 로맹 가리가 직접 글을 써서 스스로 밝힐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로맹 가리(1914-1980)는 한 사람의 행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화려한 이력을 가진 프랑스 소설가다.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활동에 공

가치의 가치를 모를 때, 궁금해지는 것들

군으로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무공 훈장을 비롯해 많은 훈장을 받았고 전쟁 후에는 유엔에 파견된 프랑스 대표단과 로스앤젤레스의 총영사직을 맡았다. 이것도 모자라서 '하늘의 뿌리'로 유명해지면서 소설가로서 승승장구하며 영화감독 경력까지 추가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번덕스러운 입맛을 계속해서 맞추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로맹 가리도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사람들은 슬슬 로맹 가리에게 실증을 내며 재능이 바닥났다고 험담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찬사도 열광도 보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흠뻑여 대자 로맹 가리는 조용하고 천연덕스럽게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작품 하나를 세상에 내밀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자기 앞의 생'이었다. 누구나 한 번은 읽어야 한다는 바로 그 소설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밀 아자르가 콩쿠르 상을 받는다. 콩쿠르 상은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고 할지라도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물론 로맹 가리가 아니고 에밀 아자르가 상을 받았지만,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사람이니 콩쿠르 상을 두 번 받은 작가로는 유일하다.

로맹 가리와 에밀 아자르가 같은 사람

이라는 사실은 사후에 그가 남긴 글을 통해 밝혀졌지만, 생전에는 에밀 아자르와 관련해서 로맹 가리에게 더 많은 공격과 비난이 쏟아졌다.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천재적인 작가 에밀 아자르를 환호하며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밝혀내려고 안달을 했다. 그러자 로맹 가리의 조카가 자신이 에밀 아자르라며 나타났고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람들은 두 작가를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로맹 가리에게 문학적 재능이 바닥이 난 것은 물론이고 알코올 중독자에도 정치적으로는 노망난 노인네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로맹 가리가 에밀 아자르의 문체를 표절했다는 것이었다.

한때 최고의 작가로 찬사를 받았던 로맹 가리는 이제 글밭이 바닥나지 않지도 없이 조카를 표절하는 무능하고 한심한 삼촌이 된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표절했다는 이 '오피' 비난에 대해서 로맹 가리는 어떤 표정을 했을까? 참으로 궁금하다.

새로운 작가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은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밑바닥 사람들의 이야기다. 키워 줄 사람이 없는 창녀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는 로자라는 나이 많은 '늙은 창녀'가 승

강기도 없는 7층에서 산다. 주인공 모모는 10살인 줄 알았던 자신의 나이가 14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더 혼란스러워 하고, 로자는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히틀러 사진 앞에서 발벌 댄다. 하나 같이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모질고 독한 삶을 견디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다시 궁금해진다. 암암하게 말하자면 '자기 앞의 생'은 누가 쓴 것인가? 로맹 가리인가, 에밀 아자르인가? 그리고 아내 민망해진다. 그렇다. 이 쓸데없는 궁금증이야말로 가치의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음에 대한 증거가 아닌가. 작품이 훌륭하다면 작가가 누구인들 무슨 상관인가? 자신의 결핍과 번덕을 위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멋대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대는 사람들에게 로맹 가리와 에밀 아자르의 숭바꼭질은 정말이지 대단한 한 방이었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꿈꾸는 2040



김수영
위민연구원 공동대표

광주시 전체 인구 146만 9000여 명 중 청년의 인구는 43만 7000여 명이다. 광주시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로 절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의 비율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20대 초반에 광주로 유입되지만, 광주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한 해에만 약 4800여 명의 청년이 외부로 진출되고 있다. 진출자 전 연령 구간에서 40% 이상을 청년이 차지하는 수치로, 다른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학을 마친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삶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를 찾아 외부로 떠나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광주의 청년 인구 수는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41만 명, 2040년에는 27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

광주의 새로운 시작은 청년으로부터

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해 광주의 경제 활동 청년은 65.7%로, 전국의 70.9%보다 5.2% 포인트가 낮으며, 전 북의 65.2%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 2030 광주 청년 가운데 경제 활동 인구는 28만 6000명으로 전국 경제 활동 인구 997만 7000명의 2.9% 정도이며,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역사 속의 청년은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상징되어 왔다. 특히 민주화를 이루는데 가장 큰 주춧돌의 역할을 한 광주의 청년들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실 속 우리들은 '이태백' (이십대 태반이 백수), 'n포세대' (모든 것을 포기 했다는 신조어), 'NEET족' 등으로 호명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세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춧돌 정권 탄생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 국면을 맞이해 나날이 발전하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광

주 청년의 부채 비율은 22.5%에 육박하며, 평균 부채 금액은 1700만 원에 달한다. 여전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영양 실조를 진단받고, 창문 없는 한 평의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병들고 있다.

요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부모에 기대어 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과 함께 사는 부모들은 한 달 평균 약 7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출한다는 통계가 있다. 또 광주의 갱거부족은 59%로 추정되고 있다. 한참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을 부양하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고, 시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며 격렬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광주의 청년들이 광주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 해주길 염원한다.

임기를 시작하는 청년 정치인과 모든 당선자에게 헨리 지루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미래에 관한 모든 담론은 청년 문제에 이는 세대 구분 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청년 문제 해결을 통해 광주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다양한 청년 정책 실행을 위해 올해 약 32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4개 분야의 12개 부서에서 47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네 청년들이 보다 더 안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주시는 올해 계획된 여러 가지 광주 청년 정책들을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

민선 7기가 시작됐다. 광주에 2030의 청년 정치인 8명이 탄생했다. 매우 환영하며, 당선을 축하드린다. 사명감으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고, 시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며 격렬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광주의 청년들이 광주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 해주길 염원한다.

임기를 시작하는 청년 정치인과 모든 당선자에게 헨리 지루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미래에 관한 모든 담론은 청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짊어 욕망, 약속의 형태로 청년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기고



김광호
여수 여양고 교사

혹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은 한시적 직책이 아닐까? 아니 한시적 직책이 맞다. 그 직책은 긴 인생에서 한 점을 찍고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 직책에 갔을 때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맹자(孟子) 이우편(離婁篇)에 보면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온다. 군자는 하루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자질구레한 걱정거리들, 즉 일조지환(一朝之患)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생 동안 늘 염려해야 하는 큰 걱정거리, 즉 '종신지우(終身之憂)'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君子有終身之憂無一朝之患)

새로 선출된 공직자에게

일명 동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유학에서는 조직 리더의 숙명과 같은 철학이자 삶의 지침서인 종신지우(終身之憂)이다. 이것의 의미는 이렇다.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숙명 같은 지도자의 근심이다. 그 근심은 바로 평생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우환의식(憂患意識)이다.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에게 희망적인 삶을 안내할 수 있을까? 리더는 운통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할 뿐이다. 그 근심이 바로 봉사요 희생이며 헌신이다. 그 단어에 혼신의 힘까지 보태서 나날을 이웃과 타인에게 행한다는 것이다.

잠깐 하나라의 우(禹)임금이 어떻게 백성을 사랑했는지 살펴보자. 그는 7년 동안 치수 사업을 벌이며 세 번이나 자신의 집 안을 지나가게 된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왜 일까? 공직 업무 수행을 앞에 두고 사적 인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애민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동양사회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될 자색이자 철학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 일조지환(一朝之患)의 뜻은 이러하다. 아침 한나절의 근심 걱정거리라 해석할 수 있다. 아침 이슬처럼 잠시 가슴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근심거리이다. 세속적 욕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돈과 명예 그리고 출세 등은 한나절 소나기처럼 내렸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지도자가 평생 심중에 새기고 언행으로 실천할 덕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 공직에 입문한 이들이여.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 공직을 마쳤을 때 어떤 리더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당선자들에게 묻고 싶다.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종신토록 고민할 것인가? 아니 시

민을 위하여 어떤 글귀를 종신토록 마음에 새길 것인가?

혹 나와 가족, 집안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가? 그런 철학이라면 절대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웃 및 시민과 아픔과 기쁨을 공유할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고 당초 가졌던 초심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기억하자. 공직자는 큰 수레를 끄는 소의 멍에처럼 고달프고도 힘든 자리이다. 시시때때로 피멍을 가릴 갑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그 멍을 감춘 채 시민의 삶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은 우환의식(憂患意識)을 지녔으면 한다. '내 안위와 출세만을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당선자들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바란다.

社說

태풍·큰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제7호 태풍 뿌라삐룬(Prapiroon·신의 비)이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이다. 또 장흥·보성·해남·고흥·신안 농경지 2121ha가 물에 잠겼다.

여기에 태풍까지 상륙한다면 시설물 파손 등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풍수해 위험지구 내 시설물은 보수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지방시대 부동산 정책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수도권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지방 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 세력이 수도권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광주 지역 등으로 진출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과열 지구 지정과 다주택 양도세 증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의 경우 규제를 피해 내려온 투기 세력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거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기존 아파트까지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급 우선의 규제 완화 정책은 지방 도시의 초고층화와 투기의 대중화

를 부추기고 있다. 고층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 주택 공급으로 단독 주택이나 저층 주거지가 줄어들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 대책은 실종된 상태다. 2016년 말 현재 광주의 주택 59만4992호 가운데 아파트가 38만4750호로 64.7%, 단독 주택은 19만3387호로 32.5%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이로 인해 구도심과 노후 아파트가 방치되고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거나 광주시와 자치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 정책을 지자체가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의 공급 규모나 형태, 시기 등을 지자체가 결정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면 고사성어 또는 격언·금언 등으로 불리며 사람들로 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온 명언·명구들이 지금도 현실에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잘 알려진 것들 가운데는 1~2천 년의 역사를 가진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명언·명구의 끈질긴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다.

하지만 장구한 지구의 역사에서 몇 천 년은 사람 신경망의 연결 구조와 사고의 방식을 결정하는 유전자 정보가 전혀 다

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게 요지다. 맹자는 특히 "(가난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국민이 죄를 범한 후에야 법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그물 질하는 것과 같다"며 국가의 책임까지 거론하고 나선다.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한 맹자조차도 '가난 앞에서는 사람이 타고난 선한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결국 '국민이 배가 부르지 않으면 죄를 범

성선설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군사 정권 시절엔 국민의 대척점에 섰

지만 DJP연합 등을 통해 '인간'이라는 종이 유지되는 한 인간사의 깊숙한 내면과 의식 구조를 단순히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얼마 전 유명을 달리 한 김중필(JP) 전 국무총리가 미리 써 놓은 묘비명에는 '무항산이무항심'(無恒産而無恒心)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중국 전국 시대 제나라의 왕이 '정치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맹자가 한 답변이다. 일반 국민이 가난에 찌들게 되면 방탕과 괴벽, 부정, 탈선과 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32	계 획 관 리 국	227-9600
문 화 부	220-0663	업 무 국	220-0551
문 화 부	220-0663	(FAX 222-0195)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문 화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